

어명소 2차관, 장기 지연된 “광명-서울 고속도로 개통에 만전” 당부

- 지자체 등과 소통을 통한 철저한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 주문 -

-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27일 15시 광명-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.
 - 어 차관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사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뒤 “광명-서울 고속도로는 이미 준공된 수원-광명 고속도로(16. 4월 개통) 및 서울-문산 고속도로(20. 11월 개통)와 연결되는 수도권 서북부의 주요한 간선축 고속도로로서,
 - 개통 시 부천, 광명, 강서 등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의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주요 노선인 만큼 조속한 건설이 중요”함을 당부하였다.
 - 아울러, “본 사업이 2012년에 실시협약이 체결되었음에도 지역사회 민원 등으로 노선 변경 및 지하화 등이 이뤄지면서 상당기간 공사기간이 지연된 만큼, 더 이상의 공사기간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·주민과 소통하면서 공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때”라고 강조하였다.
- 특히, 어 차관은 터널공사 현장 등을 둘러보고 “도심지 내에서 추진되는 공사인 만큼 작업차량에 의한 교통 불편과 소음·진동 등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생활환경 분야에 각별히 신경써 줄 것”을 주문하였다.
 - 이와 함께, “공사장 내에서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점검과 안전관리에 나설 것”과 “건설노조의 불법행위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”을 당부하였다.

- 아울러, “최근 기온 급강하로 도로 살얼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사구간 내에 있는 임시도로에 대해서도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해 달라”고 강조하였다.

2023. 1. 27.

국토교통부 대변인